

골프동호회 윤은기 신임 회장 선출



공군전우회 골프동호회는 6월 12일 수원기지 체력단련장에서 단체장 회의를 개최했다. 첫 안건인 주요 회무 보고에 이은 임원 선출에서는 지난 2년간 헌신한 이용빈 회장과 이강욱 부회장의 뒤를 이어, 윤은기(학사 70기, 공군정책발전자문위원장) 회원이 신임 회장으로, 송호(학사 75기, 학

사골프회장) 회원이 신임 부회장으로 각각 선출되어 동호회의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한편, 전우회원 간 화합을 다질 ‘친선골프대회’는 오는 11월 4일(수) 개최하기로 확정했으며, 대회를 위한 세부 운영 계획은 다가오는 7월 28일 총무단 회의를 통해 구체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최명상 회원, 6·25전쟁 76주년 안보 특강

본회 최명상 회원(예 준장·공사 16기)이 지난 6월 15일 오전 공군 항공우주안전단 교육관에서 현역 및 예비역을 대상으로 ‘6·25 전쟁 기원의 진실’ 안보 특강을 실시하였다.

프랑스 소르본느대 정치학 박사이자 국제관계학 전문가인 최 회원은 이날 강연에서 6·25전쟁 76주년을 맞아 다양한 학설과 대내외 요인을 심도 있게 분석한 결과, 한반도 분단과 6·25 전쟁이 미·소 냉전 질서의 희생물임을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의 안보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과 우리가 새겨야 할 명쾌한 교훈을 제시하였다.



최현국 회원, 콜롬비아 정규학교 한국어반 개설

본회 최현국 회원(주콜롬비아 대사, 예)중장)이 지난 5월 29일, 콜롬비아 내 3개 중·고등학교와 정규 한국어반 신설을 위한 ‘한국어 채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성과는 과라카이 한국교육원



과의 긴밀한 협조 아래 현지 교육당국과 학교 관계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이뤄낸 결실로, 콜롬비아 정규학교 12개 학급에서 한국어반이 개설되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최 대사는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이 양국 교류와 협력을 이끄는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영하 회원, 신춘문예 포함 다수 문학상 수상



본회 이영하 회원(공사 22기, 전 공군참모차장/주 레바논 특명대사)이 4월 25일 중랑구청 대공연장에서 열린 ‘2026 제16회 신춘문예 샘문학상’ 시상식에서 본상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전우회의 위상을 높였다.

(사)샘문뉴스와 샘문학이 주최하고 서울

특별시 등이 후원한 이번 행사에서 이회원은 엄격한 심사를 거친 끝에 문학적 역량을 인정받았다. 또한 6월에는 한석봉 문학상과 타이베이 국제문학상을 수상하였으며, 최근 감성시집 ‘영혼의 날개로’를 출간하는 등 열정적인 창작활동을 펼치고 있다.

국방표준화저널(DEFENSE STANDARDIZATION JOURNAL) 창간 안내

대한민국 방산은 축적된 기술력과 ADD, 방산업체 등 국방산업 전반의 지속적인 노력에 힘입어 K-방산으로 거듭나며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찾고 있으나, 그 이면에는 한국에 도입된지 70년이 넘는 “국방표준화”가 본래 의미와 목적에 맞지 않은 “규격화”라는 좁은 개념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을 통해 AI의 역할이 핵심으로 떠오르며 AX·DX 차원 국방 혁신이 요구되고 있지만, 한국군의 현실은 핵심 요소인 Data 배포 기준이나 표준과 규격 문서 관리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렇듯이 K-방산의 약진과 함께 국방표준화 중요성도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연구와 정보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전문가 양성에 도움을 주고자 (사)한미자유안보정책센터(KAFSP)에서 시대적 필요에 부응하여 「국방표준화저널(DEFENSE STANDARDIZATION JOURNAL)」을 격월간지로 창간하였습니다.

본 저널은 미 전쟁부(DoW) 국방표준화 프로그램(DSP), 시스템 도구와 신규 또는 개정된 문서 소개 중심으로 편성될 예정입니다. 이는 미군 시스템 벤치마킹을 통한 한국군 실정에 부합한 체계와 도구를 구축하고, 분야별 전문가를 양성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며, 나아가 국방표준화 선도국인 미 전쟁부와 한국군 간의 격차도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창간호는 NSS, NDS, FY26 NDAA 등의 소개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저널은 파일로 공유(링크 주소: www.kafsp.com/DSJ)가 가능하며, 아무쪼록 본 저널이 한국군의 국방표준화 정상 궤도 진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구독 및 후원 문의 : 편집장 백현봉 Mobil. 010-5073-2652, E-mail. purehb@hanmail.net

코리아는 은혜를 잊지 않는다

윤은기 (예 중위, 학사70기, 공군정책발전자문위원장)



“은혜를 아는 개인은 성숙하고, 은혜를 갚는 국가는 위대하다.”

한 나라의 품격과 미래는 그 나라가 누구를 기억하고,

누구에게 감사를 표하는가에 달려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대한민국이 가장 고통받고 외로웠던 시절, 아무런 대가 없이 손을 내밀어 준 6.25전쟁 참전국 전우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특히 아프리카 대륙에서 유일하게 지상군을 파병해 준 에티오피아는 우리가 대대손손 그 은혜를 갚아야 할 가장 특별한 혈맹이다.

1950년 6월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에티오피아의 하일레 셀라시에 황제는 “침략군에 맞서 싸우라”며 황실 근위대를 주축으로 한 ‘강뉴(Kagnew) 부대’를 창설해 대한민국으로 보냈다. ‘강뉴’는 에티오피아어로 ‘격파하라’ 또는 ‘혼돈에서 질서를 확립하다’라는 뜻이다.

그들이 한반도 땅에 남긴 발자취는 가치적적이었다. 전쟁 기간 동안 총 3개 대대, 6,037명의 정예 병력이 참전했다. 화천지구 전투, 삼각고지 전투 등 가장 치열한 전선에서 용맹하게 싸우며 122명의 전사자와 536명의 부상자를 냈다.

강뉴 부대는 253번의 크고 작은 전투에서 모두 승리하는 상상 초월의 전과를 올렸다. 특히 놀라운 것은 이들이 단 한 명의 포로도 남기지 않았고, 단 한 명의 전우도 전장에 버려두고 후퇴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 자신들의 가장 고귀한 청춘과 피를 아낌없이 바쳤다.

“우리가 피 흘려 지킨 대한민국이 이토록 위대한 나라로 발전한 것을 보니, 우리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깨닫습니다. 매년 우리를 잊지 않고 찾아주어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최근 열린 6.25전쟁 75주년 기념식에 초청되어 한국을 찾은 에티오피아 참전용사들의 한마디는 우리의 가슴을 울렸다. 백발이 성성한 노병들은 몰라보게 변형한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고, 도리어 기억해 줘서 고맙다며 한국 정부와 국민에게 감사를 표했다.

전쟁 후 에티오피아는 정권 교체와 극

심한 가난 속에서 참전용사들이 오랜 세월 ‘공산주의 정권의 박해’를 받는 가슴 아픈 역사를 겪었다. 대한민국을 도왔다는 이유로 재산을 몰수당하고 핍박받으면서도, 그들은 훈장을 가슴에 품고 살았다. 이제 우리가 그 눈물을 닦아주어야 할 때다.

다행히 대한민국 정부와 민간단체는 이들의 은혜를 잊지 않고 꾸준히 보은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 ‘따뜻한 동행’과 같은 민간단체들은 에티오피아 현지의 참전용사 가족을 개보수하고, 생계비를 지원하며,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운동을 매년 이어오고 있다.

국가보훈부 역시 참전용사 후손들을 위한 장학 사업과 국내 유학 지원을 확대하며 보은 활동을 넓혀가고 있다. 이는 단순한 자선이나 원조가 아니다. 대한민국이 마땅히 해야 할 ‘도리’이자, 국제사회에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신의의 정표다.

개인이든 국가든 은혜를 입었으면 반드시 갚는 것이 인류 보편의 도덕률이다. 에티오피아를 비롯한 22개국 유엔 참전용사들이 없었다면 오늘날 세계를 선도하는 자유대한민국의 기적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참전용사 본인들을 챙기는 것을 넘어, 그들의 자손들이 자부심을 품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과 자립을 대대손손 지원해야 한다. 가난의 대물림을 끊고, 그들이 에티오피아의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보은이다.

“대한민국은 피흘려 도와준 은혜에 반드시 대(代)를 이어 보답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국격을 세계 최고의 반열에 올리는 ‘최선의 외교’이며 가장 강력한 ‘K-파워’다. 이것이 진정한 소프트파워다. 에티오피아뿐만이 아니다. 6.25전쟁에서 대한민국 국군과 함께 적을 물리친 참전국가와 참전용사를 기억하고 끝까지 보답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한복판 광화문 광장에 6.25전쟁 참전국과 참전용사를 기리는 ‘감사의 정원’이 생겼다. 감사와 보은의 마음을 담았다. 마주 서서 바라보니 가슴이 뜨거워진다.

“코리아는 결코 은혜를 잊지 않는 나라다.”

는 본격적인 생일축하 행사가 예정돼 있다. 합성과 흥분이 가득한 옥타곤은 글래디우스(Gladius)만 없을 뿐 분위기는 로마의 콜로세움과 유사하다. 로마 황제가 검투 경기를 주관하듯 트럼프는 승자와 악수를 나누며 엄지를 들어 올릴 것이다.

민주당과 언론, 그리고 보수층 일부에서는 부정적 반응을 감추지 않고 있다. 개인 생일잔치에 백악관을 사적으로 이용하고 엄청난 비용의 좌석권을 기업들에게 팔아 공개적으로 로비 자리를 만들어 주는 정경유착이라 비난하고 있다. 게다가,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계속 중이고 경제도 불안정한 상황에서 이런 터무니 없는 행사를 벌이는 것은 미국 망신이라는 주장이다. 트럼프도 이를 의식한 듯, 이번 행사에 국가세금은 한 푼도 사용하지 않고 모든 비용을 기업후원으로 충당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마침 올해로 250주년이 되는 미국독립을 기념한다는 명분 하에 제복 입은 장병들을 초대해 생일잔치에 쏠리는 비난을 비켜간다는 전략이다.

그런데, 트럼프의 쇼맨십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자신의 팔순과 기가 막히게 들어맞은 독립 2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250달러짜리 지폐를 새롭게 발행하고 거기에 본인의 얼굴을 넣는다는 계획도 발표한 것이다. 말하자면, 조지 워싱턴, 링컨과 같은 반열에 오르는 셈이다. 그런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1866년 제정된 미국 연방법에는 ‘오직 사망한 인물의 초상만 화폐에 넣을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다고 한다. 아무리 트럼프라든 법까지 어기면서 야당과 여당 일부의 반대를 무시하기란 제정신으로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고, 트럼프가 호락호락 물리날 리는 없다. 총알이 귀를 스치며 비켜가는 순간 ‘신이 나를 보호한다’는 믿음까지 갖게 되었는데 이런 하찮은 장애물에 굴복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지폐 대신에 1달러짜리 기념주화를 만들어 거기에 얼굴을 새기는 방안에 대해 법률 검토까지 마쳤다고 한다. 코인에도 살아있는 사람의 얼굴을 넣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 있지만 세부 규정에 뒷면(reverse)에만 금지한다는 문구만 있어 앞면(obverse)에는 넣어도 법 위반이 아니라는 기막힌 논리를 찾아낸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250달러 지폐에 얼굴

도안을 넣기 어렵다면 그 대신에 모든 미국 지폐에 들어가 있는 재무장관 사인을 트럼프 사인(sign)으로 바꿔서 발행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니까, 올 6월부터 발행되는 1, 5, 10, 20, 50, 100 달러 지폐에는 트럼프 친필서명이 들어간다는 얘기이다. 설마, 이게 다일까. 이 정도 선에서 그친다면, 베네수엘라 야당 지도자 마차도(Maria C. Machado)가 금년 1월 선출한 노벨평화상 메달을 넘겨 받아 노벨위원회가 그렇게 주지 않던 노벨상을 셀프 수상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트럼프 정부에서는 250달러 지폐를 대신해 결국 트럼프 얼굴이 들어가는 화폐가치 250달러 금화를 발행할 예정이다. 금화에 들어간 금값만 9만 달러(약 1억 천만 원)에 이르고 판매가는 1.5~2억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24K 금화 47개를 자신의 재임 기념으로 한정판 발행한다는 것이다. 호사자들 사이에선 금화의 희소성과 화제성으로 인해 매매가가 수십억 원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트럼프에겐 신이 내려준 두 번째 임기가 매우 만족스러운 듯하다. 콜로세움에서 검투경기를 열어 시민들을 열광하게 만들고 자신의 치적을 알리기 위해 주화를 발행했던 로마의 황제들처럼 트럼프 자신도 황제 놀이를 즐기는 것 같다. 제국의 힘은 문화나 가치 등의 소프트 파워(soft power)에서 나오고 그 힘을 상실했을 때 제국이 쇠퇴한다는 일각의 주장(대표적으로 Joseph Nye)은 UFC와 전쟁을 좋아하는 마초 황제에게는 약자의 자기변명으로 들리는 듯하다. 아이러니하게도, 비판자들의 ‘왕은 없다(No Kings)’ 구호는 그래서 틀린 말이다. MAGA(Make America Great Again) 구호는 앞으로 MAGE(Make America Greet Emperor)로 바뀌어 할지도 모르겠다.

어쨌거나, 이왕 황제가 되기로 작정했다면 평화롭고 자애로운 파스 아메리카나(Peaceful and benevolent Pax-Americana)를 이끌었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담아, 1962년 케네디 대통령의 생일 기념식에서 축하 노래를 부른 마를린 먼로의 목소리를 빌려 미합중국 황제 도널드 존 트럼프에게 정중한 생일축하 인사를 전하고 싶다.

“Happy Birthday to You, Mr. Emperor~”

전쟁의 명칭, 6·25전쟁 어떻게 불러야 할까?

신항균 (예 대령, 공사33기)



어느덧 올해도 어김없이 호국보훈의 달, 6월이 찾아왔다. 매년 6월이면 각종 언론에서 의무적인 행사처럼 6·25 관련 특집이나 홍보성

프로그램을 내보내곤 한다. 문득 40대 이하의 젊은 세대, 특히 지금의 학생들은 이 전쟁에 대해 어떻게 교육받고 있는지 궁금해진다. 이를 계기로 1950년(경인년) 북한의 침략으로 발발한 이 전쟁의 명칭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려 한다.

2008년 국방부 군비검증단 근무 시절, 나는 국방일보에 전쟁 명칭과 관련된 기고문을 내려다 아쉽게 뜻을 이루지 못한 적이 있다. 당시 글의 요지는 이러했다.

“왜 ‘서해교전’인가? 피해자인 우리가 제3국인인가? ‘서해도발’로 불러야 옳지 않은가. 또한, 국방부조차 이따금 ‘한국전쟁’이라는 단어를 쓰고, 언론과 방송 역시 왜 제3자의 시각처럼 ‘한국전쟁’이라 칭하는가?”

비록 당시 기고는 무산되었지만, 다행히 문제가 되었던 ‘서해교전’이라는 용어는 현재 ‘제2연평해전’으로 올바르게 정립되었다. 그렇다면 6·25 전쟁은 어떻게? 나는 개인적으로 이를 ‘경인적란(庚寅赤亂)’이라 부른다. ‘경인년(1950년)에 붉은 무리가 일으킨 난’이라는 뜻으로, 발생 시기와 뼈아픈 난을 일으킨 주체를 명확히 보여주는 명칭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요즘도 방송과 언론에서 ‘한국전쟁’이라는 표현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진보와 보수라는 진영 논리를 따

‘Trump를 위대하게’ 혹은 ‘미국을 우습게’

박영준 (예 대령, 공사36기, 한국국가이익연구소장)



트럼프 대통령이 6월 14일 자신의 팔순잔치를 위해 백악관에서 UFC 대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현재 경기장(옥타곤) 공사가 한창이라고

한다. 관람석은 약 4500명 규모로 옥타곤에 가까운 링사이드 좌석은 가격이 100만~150만 달러에 달해 자연스럽게 이런 거액을 지불할 수 있는 대기업 CEO, 억만장자,

할리우드 및 스포츠 스타 등에게 배정될 예정이다.

물론, 트럼프 정부 관료들과 공화당 정치인들도 대거 참석하는데 이들의 입장권은 기업이 후원하게 된다. 당일 옥타곤 현장을 상상해 보면, 특별무대에서 세계 최강의 전사들이 혈투를 펼치는 가운데 정재계 거물들과 유명 셀럽들이 피의 향연을 즐기면서 사교를 벌이는 익숙한 광경이 그려진다.

경기 전 환영리셉션에 이어 경기 중에도 최고급 요리와 와인이 제공되며 경기 후에

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사용을 지양해야 할 단어다. 내 주관적인 고집 때문이 아니라, 명백히 옳지 않은 표현이기 때문이다.

‘한국전쟁’은 영어 표현인 ‘The Korean War’를 그대로 번역한 것에 불과하다. 제3자인 외국인들의 시각에서는 한반도에서 일어난 전쟁이라는 뜻으로 그렇게 부를 수 있다. 우리가 베트남이 남북으로 갈라져 싸운 전쟁을 ‘베트남전’이라 부르는 것과 같은 이치다.

하지만 우리는 이 전쟁의 당사자이자 뼈저린 피해자다. 우리가 겪은 참혹한 전쟁을 남의 일처럼 객관화시켜 부를 수는 없다. 다만, 철저한 객관성이 요구되는 논문이나 학술지에서는 예외로 둘 수 있으며, 이 부분은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인 영문 표현 가이드라인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전쟁의 명칭은 국가적 차원의 주제성과 상징성을 온전히 담아내야 한다. 예컨대 미국인들은 자신들의 내전인 ‘The Civil War’를 결코 ‘미국전쟁(The American War)’ 또는 ‘남북전쟁(The War of North vs South)’이라 부르지 않는다. 영국인에게 포클랜드 전쟁을 아르헨티나식 명칭인 ‘말비나스 전쟁’이라 말했다가는 엄청난 모욕감을 주며 큰 항의를 받을 것이다. ‘포클랜드 전쟁’이라 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국가적 변란이나 이슈에 발생 연도와 주체를 붙여 명명해 왔다. 임진왜란, 병자호란, 임오군란, 갑오개혁 등이 그 예다.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연도로 대표하고, 난을 일으킨 주체나 사건의 성격을 상징적인 단어로 요약한 것이다. 과거에 쓰였던 ‘경인동란(庚寅動亂)’이나

‘경인공란(庚寅共亂, 경인년에 공산당이 일으킨 난)’이라는 표현도 이러한 맥락에서 제법 타당성을 지닌다.

현재 이 전쟁을 부르는 명칭은 각국의 입장에 따라 다양하게 혼재되어 있다.

우리나라: 6·25, 6·25 사변(선전포고 없는 기습 공격), 6·25 동란(전쟁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 6·25 전쟁, 한국전쟁(타국 시각의 표현이라는 비판 존재) 등
북한: 인민해방전쟁
일본: 조선전쟁
중국: 항미원조전쟁 (미국에 대항해 북한을 도운 전쟁)

미국 및 국제사회: Korean War

이렇듯 수많은 용어 중 과연 어떤 명칭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가장 적절할까? 특히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군인들에게 이는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 전쟁의 명칭은 국가의 정체성을 굳건히 하고 역사적 교훈을 상징해야 하므로, 제3자의 시각이 담긴 ‘한국전쟁’이라는 표현만큼은 한국인으로서 가급적 금기시하는 것이 마땅하다.

현재는 ‘6·25 전쟁’이 공식 명칭으로 굳어져 널리 사용되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경인적란(庚寅赤亂)’이나 ‘경인공란(庚寅共亂)’을 제안하고 싶지만, 이미 공식화된 명칭이 있는 만큼 최소한 우리의 역사를 남의 일처럼 부르는 우를 범하지 말고 올바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옳다. 또다시 찾아온 6월, 국립현충원에 잠들어 계신 호국영령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의 굳건한 안보 의식과 주제적인 역사의를 되새겨 본다.

헐버트 박사와 경천사지 십층석탑

황태인 (예 중위, 학사70기, ㈜루츠템 회장)



국립중앙박물관의 전시실 입구로 들어가 중심 화랑을 따라 걷다 보면 거의 끝에서 높이 13.5m에 달하는 ‘개성 경천사지 십층석탑’을 만나게 된다.

이 탑의 기구한 운명을 알면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한 호머 헐버트(Homer Hulbert, 1863~1949) 박사’의 조선 사랑과 조선의 독립을 위해 땀속 깊이 헌신한 것을 알게 된다.

헐버트 박사가 제물포 항구를 통해 조선 땅을 밟은 날이 1886년 7월 5일 아침이었으니 올해는 헐버트 박사가 내한한 지 140년 되는 해이다. 그는 조선 말기 우리가 문을 꼭 닫고 살던 암울한 시기에 조선의 문명 진화를 위해 교육자로 왔고 국가의 운명이 풍전등화였던 대한제국시기 독립운동에 지대한 공을 세우신 분이다. 헐버트 박사는 조선에 첫 근대식 국립학교인 육영공원 교사로 내한한 이래, 한글 연구와 보급, 한국 독립운동 지원 등 평생을 한국을 위해 헌신한 인물이다.

헐버트 박사는 1895년 고종 칙전에서 불침번을 서며 국왕을 지키는 이래 1945년까지 50년간 독립운동을 하신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한 분이다.

그는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한다”는 유언을 남겼으며, 1949년 8.15 광복절 행사에 초청되어



한국을 다시 찾았으나 오랫동안 배를 타고 오는 여독을 이기지 못하고 서거한 뒤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에 안장되어 있다. 오죽하면 안중근 의사는 1909년 조선 통감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뒤 뤼순감옥에서 “헐버트는 한국인으로서 하루도 잊어서는 안 되는 인물”이라며 최상의 존경을 표했겠는가.

경천사는 개성 부근 부소산 기슭에 세워졌던 사찰이다. 장건 연대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고려 예종(재위 1106~1122) 이래 여러 왕들이 방문한 기록이 있어 12세기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십층석탑은 고려 충목왕(재위 1345~1348) 4년인 1348년에 건립되었다. 탑에 새겨진 명문에는 원나라 황

실의 안녕을 기원하는 내용과 원나라 권력자들과 가까웠던 강윤과 고용봉이 큰 시주자(施主者)로 새겨져 있다.

우리나라 석탑은 사각·팔각 등 일정한 기하학적 형태를 층층이 반복하는 패턴을 보이는 반면에 이 탑은 다른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 탑은 기단부터 3층탑신까지는 사면에 돌출부가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고 4층부터 10층까지는 단순한 방형을 반복해 올려진 형태다.

탑 표면에 부조가 빈틈없이 새겨져 있다. 이를 두고 ‘신증동국여지승람(1530)’에 “인물이 살아 있는 듯하고 형용이 선명해 천하에 둘도 없이 정교하게 만들었다”고 찬탄하고 있다. 우리나라 석탑의 재료가 대부분 화강암인데 반해 이 탑의 재료는 대리석이라 세밀한 조각을 하기에 좋았을 것이다. 기단부에는 불교계의 큰 스님인 현장법사의 구법 여행이 새겨져 있으며, 탑신부 1~3층에는 여러 부처의 설법 모임이 펼쳐져 있으며 각각의 부처는 건축물 안에 앉아 보살과 대중에게 가르침을 전하는 모습을 하고 있다.

이런 우리의 훌륭한 유물을 1907년 일본 궁내대신 다나카 마사아키(田中光顯)가 해체해 도쿄에 있는 자기 집으로 불법 반출했다. 이때 이 만행을 폭로한 사람이 조선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분들이었다. 영국 출신 언론인 어니스트 베텔(Ernest Thomas Bethel, 1872~1909)은 1907년 3월 대한매 일신보 영문판에 이 사실을 보도했고, 고종의 외교특사로 조선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미국인 교육자이자 선교사 헐버트 박사는 일본의 영자 신문에 불법 약탈 사실을 알리고 반환의 당위성을 알렸다.

특히 헐버트 박사는 개성현장에 가 약탈 현장 사진을 찍어 국제사회에 고발함으로써 그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11년 만에 대한

민국으로 돌아왔다. 1918년 우리나라로 돌아온 후에는 1960년 경복궁 안에 세워졌고 대대적인 수리와 복원 과정을 거쳐 2005년에 현재의 자리인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되었다.

헐버트 박사의 조선 문화 사랑은 거북선, 한글, 금속활자와 함께 최닝쿨로 만든 부교를 조선의 4대 발명품으로 전 세계에 알리는데 큰 공을 세웠다.

특히 최닝쿨 부교는 임진왜란 때 명나라 군대와 함께 평양성을 탈환할 때 조선군 총사령관 류성룡이 최닝쿨을 모아 그걸로 새끼를 꼬아 엮어서 임진강 양쪽에 매어서 부교를 만들어 말과 대포가 건널 수 있게 하였다. 지금도 미국 육군사관학교(West Point)에서는 최닝쿨 부교를 교재에 포함하여 전술학을 가르치고 있다. 2026년 3월 21일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방탄소년단(BTS)이 광화문 광장에서 선보인 민족의 혼이 서려있는 아리랑에 음계를 붙이고 채록을 해 아리랑의 대중화를 이끈 사람이 바로 헐버트 박사이다.

‘개성 경천사지 십층석탑’의 기구한 역사를 알고 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하게 되면 우리의 훌륭한 유물에 더욱 더 애국심을 갖고 관람하게 될 것이다.

올해가 헐버트 박사 내한 140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보니 그의 무한한 한국 사랑이 더욱 더 그리워진다. 헐버트 박사께서는 건국훈장 독립장(3등급)과 금관문화훈장을 수훈하였다.

헐버트 박사는 외국인으로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하고 한국의 독립과 한글 발전 및 아리랑 사랑 등에 헌신한 점들’을 고려한다면 마땅히 그 분에게 최고 등급 훈장인 건국훈장 대한민국장(1등급)을 서훈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마땅한 도리일 것이다.

[기획연재: 고전에서 얻는 지혜] 위기지학(爲己之學) 위인지학(爲人之學)

배움에 대한 두가지 생각

윤우 (예 소장, 공사 28기, 사단법인 국어고전문학원 명예이사장)



공자는 “옛날 사람들은 자신을 가꾸기 위한 학문을 했는데, 지금은 (출세를 위해)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학문을 한다.[古之學者爲己, 今之學者爲人]”고 했습니다.

순자는 “군자는 자신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 배우고, 소인은 벼슬을 하기 위해 배운다.[君子之學也以美其身, 小人之學也以爲禽犢]”라고 했습니다.

맹자는 “학문하는 길은 다른 것이 없고, 잃어버린 마음을 되찾는 것일 뿐이다.[學問之道無他 求其放心而已矣]”라고 했고, 그 잃어버린 마음을 하늘이 태초에 부여해준 ‘인의예지(仁義禮智)의 성품’으로 설명하고, 선한 마음을 회복했을 때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느끼게 된다고 했습니다.

노자와 장자는 학식으로 인해 인간의 편견과 욕망이 커지는 것을 경계하여 덜어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爲學日益, 爲道日損].

동양의 이분법적 시각과 달리 서양은 ‘성숙’ 또는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그 과정에서 “개인은 자유로움과 행복을, 사회는 끊임없는 발전을 누리는 것”으로 설명해 왔습니다. 서양 철학자들이 말하는 최고의 행복은 “아무 걱정 없이 쉬는 상태가 아니라 내 이성과 잠재력을 최고도로 발휘해 깊이 탐구하고 깨달아가는 상태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며, 나이가 들수록 학문을 통해 젊은 시절에 습득한 알팍한 지식에서 벗어나 유연하고 성숙한 모습을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공통분모를 뽑아 정리해보면 우리는 학문을 통해 더 나은 인간이 될 수 있고, 더 행복해질 수 있으며, 진정한 깨우침을 얻어 이웃을 행복하게 해줄 때 가장 깊은 만족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호흡이 있는 동안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더 행복하기 위해 배우기에 힘쓰고, 위인지학(爲人之學)보다는 위기지학(爲己之學)을 추구하는 아름다운 사람이 많아져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 되면 좋겠습니다.

성공된 삶이란?

안호원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특임교수 / 미 버지니아 바이블대학교 부총장)



TV에서 서로를 헐뜯는 후보들의 토론을 보면서 문득 오래전 중년 남자 탤런트가 상업광고에 출연, 대사 중 ‘너 나 잘 하세요’라는 멘트가 떠오른다. 또 몇 해 전 유행했던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라는 유행가가 생각났다.

당시 그 유행가를 들을 때마다 세상인심이 각박해지는 것 같은 기분에 씁쓸한 마음으로 냉소를 지어 보인 적이 있었다. 물론 유행가와 유행어는 말 그대로 한 시대의 역사적인 흐름을 말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네가 나를 모르는데...’나 ‘너 나 잘 하세요’란 이 말은 어떻게 들으면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말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시각에서 보면 등줄기에 차가운 전율을 느끼게 하는 말이기도 하다. 그만큼 이 사회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남을 배려하거나 생각할 필요 없이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의식이 팽팽해진 것이다.

아울러 인정이 메마르고 사랑이 식어 간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더구나 과학의 발달로 이 사회가 물질 만능시대로 접어들면서 삼강오륜(三綱五倫)은 가을 낙엽처럼 땅에 떨어진 지 이미 오래되었고 핵가족이 되면서 윤리도, 도덕도 심지어는 가족관계의 위계질서까지도 파괴되는 가운데 사랑마저 퇴색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특히 가정교육에서부터 학교, 사회교육이 모두 변질되면서 인간들이 기계처럼 정확해지고 영리해지는 반면 아주 냉철한 마음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인간을 생화학적 가치로 따지자면 다른 동. 식물만도 못한 불품 없는 존재일 수도 있다. 그러나 또 다

른 측면에서 보면 인간은 무한한 가치와 정신을 갖고 있는 존재이기도 하다.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사실 사랑을 느끼는 것은 순간이지만, 그것을 오랫동안 지키기란 그리 쉽지 않은 않다.

정말 어려운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억지로 잊기 위해 몸부림치면서도 그리워하는 사랑이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옛말이 있듯 사랑이란 자신이 마음을 쏟은 만큼 깊어지는 것이다. 아무 고통도 느끼지 않으면서 아름답고 포근한 사랑을 기대한다는 것은 지나친 과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연 성공된 삶의 기준은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았다. 많은 사람들은 부(富)를 축적하고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는 것을 마치 성공된 삶의 기준으로 생각한다.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돈을 많이 버는 것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게 되고 결국 그 같은 돈을 성공의 기준으로 삼다 보니 어떤 과정보다는 결과만 생각하게 되고 급기야는 인간이기를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정치도 마찬가지다. ‘모로 가든 서울만 가면 된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목적’만 이루면 된다. 요즘 세태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또 어떤 이들은 출세하고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성공한 삶을 산 사람으로 생각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돈을 많이 벌었다고, 명예와 명성을 얻어 유명해졌다는 것만으로는 성공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인생에서 진정한 성공은 ‘진정한 자기’를 회복하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철학자 ‘하이데카’는 “인간은 던져진 존재”라고 했다. 그의 말대로 인간은 던져진 존재라고 가정할 때 ‘나’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 있어야 하는 이유가 성립되어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성공된 삶

파도타기

이윤우 (예 소령, 공사 6기)



서핑보드 타고
파도위를 시원하게
달리는 스포츠

자연이 주는 에너지
파도와의 조화로
심신을 힐링

파도의 피크(Peak) 상황에서
파도의 컬(Curl) 상황에서
가장 즐기는 공간

파도의 컬 상황에서의
멋진 몸동작
볼수록 감동이네



을 산다고 말할 수 있다.

아무리 높은 지위와 돈과 명예를 갖고 있어도 다른 이들의 판단과 상관없이 자신의 길을 가지 못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재할 이유가 분명치 않으면 그 인생은 결국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살아 존재할 이유가 있다면 바로 나를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님과 자식들, 그리고 벗들과 이웃이 곁에 있기 때문이다.

성공된 삶이란 인성을 갖춘 인간으로서 이 사회에서 필요한 존재의 이유가 분명한 삶을 살 때이다.



이렇게 준비하세요!

건강한 여름나기

더운 시간대에는 활동 자제하기

- ☀ 더운 시간대에는 야외작업, 운동 등을 자제하고, 시원한 곳에 머물기

* 자신의 건강상태를 살피며 활동 강도 조절하기



물 자주 마시기

- ☀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물 자주 마시기

* 신장질환자는 의사와 상담 후 섭취



시원하게 지내기

- ☀ 샤워 자주하기
- ☀ 헐렁하고 밝은색의 가벼운 옷 입기
- ☀ 외출 시 햇빛 차단하기 (양산, 모자 등)



매일 기온 확인하기

- ☀ 기온, 폭염특보 등 기상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기



온열질환은 작은 실천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